

올해 광주인권상 우간다 '실비아 아칸'

13세대 반군조직에 납치 8년간 억류 여성·아동 권리 보호 등 인권 활동가 일상 회복 지원 '골든 우먼' 설립·운영 오는 17일 전일빌딩245서 시상식 개최



그녀 인권 보호에 뛰어난 계기는 13세대 우간다 반군 조직인 '신의 저항군(LRA)'에 납치돼 8년간 억류됐던 아칸에서 비롯됐다. 억류에서 풀려난 아칸은 여러 피해 여성들의 회복과 자립을 돕기 시작했으며, 2000년부터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소속으로 120개 이상 노르웨이 북부에 위치한 실험민 캠프에서 구호 활동을 펼쳤다. 2011년에는 전쟁 성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인 '골든 우먼 비전 인 우간다(Golden Women Vision in Uganda)'를 설립했다.

해당 단체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유와 심리 치료, 재봉·제과, 비누 제작, 재봉 기술 등 직업 교육을 진행하는데, 현재까지 920명 이상이 도움을 받았다. 또 전쟁 피해자 배상 제도 개선을 위해 우간다 의회에 관련 청원을 제출하고 국제이행기정의센터의 정책 논의에도 참여했다. 이 외에도 그는 전쟁 성폭력 피해 생존자 국제 네트워크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국제 사회에서 우간다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2026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피해 생존자들의 치유와 사회 복귀를 돕고 공동체의 연대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실비아 아칸의 활동은 개인의

고통을 인권운동으로 전환하며 그 힘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광주의 정신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말했다. 윤복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광주인권상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현장을 세계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광주의 정신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인권상은 매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기간에 맞춰 수여하던 '오월 시민상(1991-1999)'과 '윤상원 상(1991-1999)'을 통합해 2000년 제정됐으며, 올해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3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모두의 인권'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연상기자

2026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우간다 인권활동가 실비아 아칸(47·여·사진)이 선정됐다. 5월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전일 오전 10시30분 오월기억저장소 회의실에서 올해의 광주인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실비아 아칸은 우간다에서 분쟁과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아동의 권리 보호에 힘써 온 인권활동가다.

'약자·생명존중 실천' 김재학 신부 선종



한평생 약자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해 온 김재학(라파엘·사진) 신부가 지난 3일 오전 자병으로 선종했다. 향년 58세.

장례미사는 5일 오전 10시 천주교 광주대교구 영주동성당에서 교구장 옥현진(시문) 대주교 주례로 봉헌됐으며, 장지는 담양천주교공원묘원이다.

1968년 광주에서 태어난 김 신부는 1993년 사제서품을 받고, 목포 용당동·원동 보좌로 사목했다.

1995년 독일로 유학을 떠났으며, 귀국 이후 신안 흑산·광주 치평동·고흥 본당 주임을 역임하면서 인권, 평화, 환경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과 광주인권평화재단 상임이사,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상임대표, 북녘어린이용우유광주전남사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영산강 113km 구간을 신자들과 도보 순례하며 생명·환경운동에 앞장섰다.

5·18 30주기는 광주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주도해 상임이사를 맡았고 미안마 등 분쟁 지역 난민 지원과 국제 인권 연대 활동에도 힘써왔다.

광주·고남동·노대동·담양·순천 조례동·광주 오치동 본당 주임으로 사목했으며, 광주북부지구장을 맡아 일하다가 2024년 1월 18일부터 질병으로 휴양에 들어갔다. /최명진기자



광주남구가족센터, 특이민원 대응역량 강화 교육

광주남구가족센터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 민원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처음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특이 민원 발생 시 실무자의 권리 보호와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악성 특이 민원인의 유형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 ▲상황별 대응 기술 ▲관련 사례 소개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서형우기자

또 '특이 민원 관련 민원 응대 지침' 구축과 함께 기관 차원의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전문 대응팀'을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장미영 센터장은 "직원들이 특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덜고 기관 차원의 대응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형우기자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지역아동센터 선물 전달

롯데케미칼(주) 여수공장은 지난 4일 여수 지역 아동센터 10곳을 찾아 500만원 상당의 문구류와 체육용품 등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어린이날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롯데케미칼은 관내 40개 아동센터 중 매년 10곳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김성권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본부장은 "미래

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은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과 사랑의 밥차 및 밑반찬 나눔, 연탄배달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수=김진선기자



'치안 수요 대응' 장흥 장평파출소 신청사 준공

장흥경찰서는 "최근 변화하는 치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평파출소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경호 경찰서장과 노영환 장흥군 부군수 등 주요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해 파출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장평파출소 신청사는 기존 장평파출소가 장

흥군 하천 정비사업 구간에 편입되면서 총예산 9억6천만원이 투입돼 현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01㎡ 규모로 완공됐다. 김경호 경찰서장은 "장평파출소가 전담 관할하는 장평·장동·유치면 일대의 치안 접근성과 위기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의 든든한 지킴이는 물론,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흥=노형록기자



전남개발공사, 순천시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전남연구원, 전남신문보존재단, 전남문화재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남도장터 등 전남 5개 공공기관 ESG협의체와 함께 '자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중동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들에게 자원 안보의 중요성과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공공기관 ESG협의체 임직원 33명은 순천시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국가적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했다. 특히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세탁기 청소기 주말 사용 등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12대 지침을 안내하며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흥도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 공공기관 ESG협의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광산구 운남어린이도서관, 어린이날 문화 행사

광주 광산구는 "제10회 어린이날을 맞아 최근 운남어린이도서관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문화행사에서는 '웃음꽃 가득! 꿈꾸는 어린이날'을 주제로 마술·버블 공연, 전통놀이 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그림책과 연계한 생동감 있는 증강현실(AR) 체험 활동과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한껏 자극하고 가족 간 끈끈한 유대감을 높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책과 함께 마음껏 웃고 즐기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기별·주제별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육근기자

목포하당청소년문화센터 '국악 예술교육 2기' 발대식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는 "최근 센터 내에서 'M-청소년 국악 예술교육 프로그램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량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과정 중심'의 예술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 청소년들은 국악 오케스트라와 판소리 창극 활동에 참여해 서로의 소리를 조율하고 하나의 무대를 완성해가는 협력 과정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자기표현력 향상은 물론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까지 두루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센터장은 "이번 발대식은 청소년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의 출발점"이라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과 연결된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순천교육지원청 '내 고장 학교 보내기 협의회'

순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관내 중·고교 진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진학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우수 인재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2027학년도 전남 고입 전형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오는 7월10일 열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진로진학 한마당'의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신규 교육장은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최적의 지역 고교를 선택해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철기자

시 기반 렌트카 교통안전 컨설팅 시범사업 업무협약



교통안전공 "AI 기반 렌트카 안전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광주렌트카사업조합 및 전국렌트카공제조합과 함께 'AI 기반 렌트카 교통안전 컨설팅 시범사업' 사업실명회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렌트카 업종의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업체별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위험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 권고와 이행관리를 통해 렌트카 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참여업체 발굴 및 사업 참여 지원, 공제조합은 사고 데이터 공유 협조, 공단은 사업 총괄 운영과 컨설팅 수행을 각각 담당한다. 사업은 광주 지역 렌트카 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약 7개월간 운영되며, 매월 1회 안전진수를 산정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형우기자

부음

▲최종민씨 별세, 최황지(여수MBC 기자)씨 조부상=발인 7일(목) 오전 7시 광주 북구 그린장례식장 20호실(062-260-4455).